

‘승격’은 ‘인격’ 위에 있는 것

나름대로 종단을 변화시켜보려고 생각했고, 또 많은 지지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뛰어들어 종단을 개혁하겠다는 생각은 ‘진정한 수행자로 살겠다’는 서원으로 180도 바뀌었다. 발상의 전환은 죽음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서 이뤄졌다.

“1998~99년도에 제가 죽을병(痼疾)이 들어서 총무원장 선거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CNN으로 조계사를 포클레인으로 찍어내리고,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상당한 충격과 자괴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종단에 5년 동안 있으면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원장에 나가보라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병 때문에 못 나갔고, 종단이 저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후퇴하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선가의 중이 됐으면서 수행을 잘 못해서 병이 생겼다. 쓸데없이 총무원에 가서 천방지축으로 뭘 하겠다고 설치고 다녀서 병이 생겼다. 내가 죽지 않고 살면 꼭 진정한 수행자로 살겠다. 그리고 절대 험고 편케는 살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미국에서 돌아와 봉암사 선원에 들어갈 때 체중이 51kg이었다. 병이 회복 되지 않아 약을 한 주먹씩 먹을 정도였다. 그때 ‘좌복위에서 그냥 정진하다 죽겠다’ 하고 갔는데 3년 후에 몸이 57kg으로 늘어났고 또 상원사에서 정진할 때 몸이 회복의 단계까지 갔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 곳(정혜사)에 와서 10년째 살면서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면, 이제 내가 제자리에 잘 왔구나, 방황하지 않고 허덕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스님은 ‘승격(僧格)은 인격(人格)의 위에 있다’고 말한다. 승격을 갖추려면 거기에겐 철저한 자기희생과 봉사, 끝없는 하심, 아상(我相)을 사정없이 내려 팽개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상이 없는 하심으로 다져진 사람들로 절집이 만들어졌을 때 감부싸움과 온갖 시비 갈등이 종식될 것이라 설명이다.

그러나 승격이 갖춰졌더라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선 한계에 직면하기 마련. 설정 스님은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교는 망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정할 일이 일어나도 즉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절집안에서는 대중공사를 통해 하루아침에 절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계원에서 초심, 재심을 하는 동안 로비를 통해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선거제도도 큰 문제입니다. 개선하지 않으면 불교가 망합니다. 총회의원 선거에 추천만 원이 들고, 총무원장 선거에 수억, 수십억 원을 씁니다. 국회의원도 100만원 받으면 모기가 떨어진다 합니다. 그런데 절집안에서 어떻게 삼보정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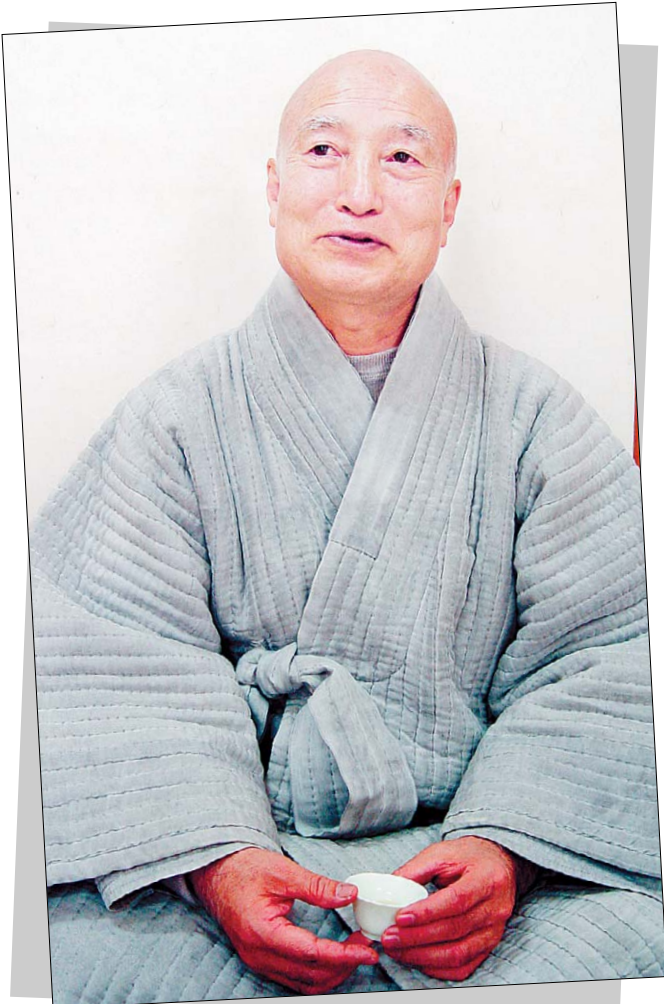
좋지 않은 곳에 쓰입니다. 지금 이런 구태의연한 선거 방법에 의해서 계속 나간다는 것은 불교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병든 수좌들,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수좌들, 또 신도 자체들 끝도 없이 많은데 어찌하고 자기의 일신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툴 쓰듯 합니까. 이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짓을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정 스님의 애증심과 불교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방장 추대사에서 덕승총림의 수행가풍 확립과 국제포교를 강조한 스님은 현재 국제포교의 중심인 서울 화계사 회주를 겸임하면서 해외포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불교를 세계화 하려면 외국인 스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미울이나 비구계는 물론 수계의 식조차 영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교재도 만들지 않고 국제포교, 세계포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신(文身)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구에서는 문화적으로 문신은 흔한 일이지만, 외국인 출가자가 수차례 지우는 수술을 해도 계를 주지 않습니다. 스님들의 삭발을 해형(解形) 형상을 무너뜨림이라고 합니다. 문신의 흔적에 매달려 계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수행 공간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합니다. 무상사의 경우 화계사의 지원이 있어 외국인에게 오고 가는 비행기 삿 외에는 받지 않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단차원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정 스님은 기회가 되면 국내 외국인 스님들은 물론 해외 불자들이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강좌를 열 계획이다. 국·내외 선사의 어록을 우리 시대에 맞는 언어로 설법함으로써 간화선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참선 공부법은 물론 한국불교의 역사와 특성, 의례, 승단의 조직운영과 교육단계 등을 익힐 수 있게 해 한국 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할 생각이다. 이는 결국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 불교를 배우고 귀국해서도 스스로 포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열세살 어린 나이에 출가해 벽초, 금봉, 원담



스님 등 고승들로부터 더 담금질을 받으며 일과 수행이 들어 아닌 공부 해 온 설정 스님. ‘불교계에 어른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 요즘, 스님의 사자후(獅子吼)는 더욱 아프고도 통렬했다. 번뇌망상을 죽이는 살인검(殺人劍)이라 부래부터 밝고 청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활인검(活人劍)이 바로 스님의 직심(直心)에서 나온 직언(直言)이 아닐까.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라 하지 않습니다. 함께 부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삶은 소리를 많이 해서 아파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덕담은 어느 해보다 아픈 할(囑: 고향치기)과 방(棒: 몽둥이질)이 쏟아졌다. 할과 방을 맞고 죽었다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경계는 수천만 인을 살리는 약값을 할 터이다. 부처님오신날은 형상에 치우친 행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있고 싶었던 저마다의 본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간과 출세간의 사부대중은 부처님 법 그대로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덕승산의 준비는 그동안 물론 우리 언행을 청정하게 씻어내리는 법비가 되리라 믿어지지 않는다.

글·사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ot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2. 송광사 회주 취봉 스님

취봉 스님(1898~1983)은 나의 계사(戒師)이다. 효봉 스님을 뵈고 송광사로 돌아와 그 해 음력 5월 초 8일부터 시작하여 <사미울의>와 <초발심자경문>을 추강 스님께 배우고, <지문경론>을 학담 스님에게 배우고 나니 8월초가 되었다. 추강 스님께서 노스님 기일이 8월 13일이라 이날 계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여 취봉 스님께 계를 받았다.

5계와 10계를 내리면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일찍이(1912·15세) 쌍계사에 입산하여 19세에 송광사 남호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이듬 해 호는 스님께 비구계·보살계를 받았으나, 1939년 일본에 유학하고 불교 승려학교, 송광사 강사를 지냈으니 출가 후 의도를 많이 하여 남의 스승 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초연(나의



기성) 사람들을 중수 중견하면서, “절은 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재를 양성하고자 절을 짓는 것이니, 우리 총림을 만들어 선방 강원 열불당을 함께 운영하자”고 말씀 하시니,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하고 물었다. “모든 것은 전문인이 해야 하니, 선방은 효봉 스님 상좌 구산 스님을 모셔 맡기고, 강원은 이를 있는 학자들을 초청하고, 우리 힘 없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열불당에서 열불하면 되지 않겠소.”

“옳은 말씀이나 권속을 거느린 대채스님들은 어찌 합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속인들도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절에서 글 배우고 큰 살림 한 것도 굶 보았으니 각기 능력 따라 절일을 볼 사람은 절일을 보고, 속가에 나아가 전법을 종사할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소.”

조계총림 설립 주역... 주지 3번 맡아 대중외호 전력

최초 불명은 들어오자마자 선방에 자리를 정하여 나와 석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봉도 하고 선(禪)도 같이 익히고, <수신결> <정혜결사문>도 배웠으니 나를 본받지 말고 보조국사 같은 분들을 본받아 공부하기 바란다.”

스님은 종종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은 시절을 찬탄하셨다.

“일본 임제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보명학교 교사로 송광사 강사가 되어 남을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덕승산 정혜사 만공 스님 회상과 통영 도솔암 효봉 스님 회상에서 한철 난 것이 나에게 가장 보람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교학공부를 하게 되면 자못 학자로 빠질 염려가 있으니, 스스로 사교입선(捨敎入禪)하여 도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말씀은 나의 귀감이 되고 있다. 스님은 1949년부터

한 되, 돈 100원씩을 거두었다. 그 숫자가 자그만치 1만명이 넘었으나 아침 저녁으로 합원대중(舍院大眾)이 그 명단을 다 읽도록 하여 거거서 익혀진 습관이 어디 가든지 불공축원 하는데 걸림이 없게 되었다.

앉으실 때는 언제나 손바닥으로 자리를 한 번씩 짚어 점검해 보고 면지가 있으면 반드시 쓸고 닦은 뒤 앉는다. 속이 흰 비치는 검정 장삼에 밤색 가사를 하고, 몸은 파리하여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다. 늘 손발이 저려 주무르고 약을 드셨는데 약은 풀 담초, 익모초 같은 것으로 만든 환약이었다. 상좌는 낙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한 분 있었고, 뒤에 출가한 분들이 두세 분 있었으나 시봉 받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렇게 해 대중전 설법 전 명부전 응향각 종각 차안당 등 10여 동의 사찰을 복구하고, 또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찰 불량담이 작지 않으니 그것을 나눠 지어 먹으면 되지 않겠소. 그렇다고 절에서 아주 나가라는 말은 아니요. 단지 절에 있거나 세속에 나가거나 중 모습을 버리지 않고 중 행위를 달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계총림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노쇠해져서는 도성당에 간병소가 만들어져 먼저 있던 성공 스님이나 계룡 스님이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스님은 1983년 5월경 본인이 쓰시던 물건을 하나도 남김 없이 나눠주고, 7월에는 낙수 교장선생님께 부탁하여 관까지 만들어 놓은 뒤 각 방당에 다니면서 날 날이 고별인사를 하고, 8월 6일 세수 86, 법랍 71세로 입적하시니, 합원대중이 모두 고개 숙여 전송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접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